

실속 재테크

금리 상승시기 투자전략

# 대출 줄이고 예금은 단기로

시중銀 특판예금 잘 활용하면 금리 4%대 후반까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랩어카운트' 눈 여겨볼 만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4%대의 은행 예금이 다시 귀환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보다 더 가파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1년 단위로 투자하는 단기 예금 상품에 주목하는 한편 대출을 비롯한 부채와 채권 관련 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할 것을 권하고 있다.

◇4%대 예금 귀환=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시중은행이 연 4%대 초반, 저축은행은 4%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특판예금을 잘 활용하면 우대금리와 함께 4.6%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U드림 정기예금' 스마트폰 특판예금은 일반 U드림 정기예금 대비 최고 0.9%포인트를 우대해주며 1년제 연 4.61%를 적용해준다. 'KB국민 첫 재테크 적금'의 경우 국민은행 첫거래 고객과 스마트폰 뱅

킹 이용 고객에게 최고 연 0.5%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해 최고 연 5.0%의 높은 금리를 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저금리 수준임을 고려해 주식 관련 상품인 추가연계증권(ELS), 지수연계정기예금(ELD) 등을 추천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추가지수연동 예금인 '더블찬스정기예금'은 최저 4.0%에서 최고 14.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6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히트상품이다. 이 상품은 오는 2월 둘째 주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랩어카운트 =3000만원 이상 여유자금에 있다면 랩어카운트를 눈여겨봐도 좋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대항마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세운 랩어카운트가 떠올랐다.

랩어카운트는 하나의 상품에 여러

명의 투자금액을 한데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고객이 맡긴 자산을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개인별 자산관리계좌로 일정률의 수수료만 내면 자산구성부터 운용,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상품이다.

개별 투자자 입맛에 맞게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추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장점이다.

여러 종목의 주식을 혼합해 구성하면 주식형 펀드, 여러 펀드를 섞어 구성하면 펀드랩이 되고, 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면 자문형랩이 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올해도 자문형랩 상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자문형랩 잔고를 10조원까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투자자들의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항우 자문형랩으로 들어올 자금의 잠재력이 크다"며 "시중은행들의 특판예금 만기 시기도 돌아오고 있어 자문형랩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고객들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바쁘다 바빠” 26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우체국(국장 주을용) 직원들이 밀려드는 설 선물용 택배 등 우편물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우체국은 이날 하루동안 1만2000건에 달하는 택배물량을 분류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할부·리스사 수수료도 인하

카드사 가맹점 이어...금감원 3월까지 조정안 마련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할부·리스사의 각종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여신금융협회와 할부·리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르면 3월말까지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별 편차가 큰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자체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이 수수료율 개편에 나선 것은 다른 업권에 비해 수수료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수수료 수준도 회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이를 일제히 정비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 리스만 해도 반환지연금, 초과운행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손해금, 반환자동차 감가율 등 각종 이점의 수수료가 붙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 중 자동차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할 때 내는 반환지연금은 수수료가 월 리스료의 10%에서 100%까지 분포돼 회사별로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최초 계약한 운행거리 이상으로 사용할 때 내는 초과운행수수료도 낮은 곳이 km당 50원이지만 비싼 곳은 km당 200원으로 4배 높다.

리스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동차를 반환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해

지 수수료율은 잔여 리스료의 30~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남은 할부금액을 일시에 갚을 때 내는 중도해지 수수료 역시 미상환원금의 1~5%로 회사별 격차가 크다. 작년 1~9월 전체 취급액 중 자동차 비중은 리스사가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5%, 할부사가 6조4천억원으로 87.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는 할부·리스사의 주된 수익원이다.

일반 대출 또한 수수료 편차가 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연체이자율은 연 19%에서 29%로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미상환원금의 1~4%로 업체간 4배 격차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전국 시중판매 물품 가격표시 실태 점검

지식경제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시중 판매 물품의 가격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경부는 유통물류과 직원 4명과 각 시도 공무원들이 함께 재래시장, 대형 점포, 중소 슈퍼마켓 등을 돌면서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명절 대목이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파는 상행위에 대한 민원이 왕왕 들어온다"면서 "이에 따라 캠페인 성격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시도는 이미 지난주부터 자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내달 4일까지 일정으로 23일부터 16개 시도와 함께 저물류 눈금 속임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민속놀이 즐기고 토끼 운동회 보고

## 에버랜드 설연휴 민속 한마당 행사

토끼야! 새해 복을 부탁해!  
에버랜드가 설날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민속 한마당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긴 연휴를 가족과 보내려는 고객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광장 전역에서는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9종의 민속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면서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에버랜드 캐릭터와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민속악기 체험을 하고 싶다면 매일 4회씩 펼쳐지는 '동동 타악놀이'에 참여하면 된다.

12시와 14시에 카니발 광장에서 펼쳐지는 '원터 플레이 타임'에서는 제기차기, 박 터트리기, 길쌈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신묘년 주인공 토끼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는 고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산토끼 마을, 집토끼 마을, 거대 토끼 마을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된 토끼 마을에서 9종 60여마리의 토끼를 볼 수 있다. 이중 토끼가 직접 五福중 하나를 골라 손님들에게 물었다 주는 '토



끼야! 복을 부탁해'는 참여한 손님에게 오복과 함께 복주머니를 선물한다. 한복을 차려입은 렉스, 자이언트, 라이언헤드 등 토끼 6마리가 장애물 넘기, 슬라럼(빠르게 회전하기), 등의 묘기를 선보이는 운동회도 볼만하다.

한편 에버랜드는 설날 연휴 기간 동안 9시30분부터 8시까지 연장(6일은 7시까지)하며 캐리비안 베이도 평일 10시부터 6시, 주말 9시30분부터 7시까지 정상 영업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46조원 vs 366억

작년 사용액 체크카드 웃고 직불카드 울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커 관심을 끌었지만 두 카드의 인기는 큰 차이를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 3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 6278억원)보다 4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건수는 9억4862만건에서 12억8035만건으로 35.0% 늘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직불카드 사용

액은 3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14억원)보다 11.6% 줄었고 같은 기간 사용건수도 95만건에서 88만건으로 7.3% 감소했다.

지난 2004년 한해와 비교해도 지난해 1~11월 사용액은 체크카드의 경우 약 18배로 커진 반면 직불카드는 58.9% 수준으로 축소됐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세액공제율이 똑같이 높다. /연합뉴스

# 막걸리 수출 이어 中·美로

작년 1910만달러...역대 최고액 기록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이 1910만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26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밝혔다.

공사는 "전체 수출시장의 80% 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75만7000달러로 2009년에 비해 280%나 증가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91만2000달러로 557%

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점유율은 2009년 7.4%에서 2010년 9.2%로, 중국은 2.2%에서 4.8%로 각각 뛰어올랐다. 국내 막걸리의 수출국도 2009년 28개국에서 2010년 38개국으로 늘었다.

하양제 공사 사장은 "올해 막걸리 수출목표는 3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근 하 신 년

#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자연속의 청정고을 곡성군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gokseong.g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reen & Clean City  
곡성입니다.